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위한 친환경 축산모델 개발

- 50억 들여 친환경 축사 모델 개발 보급
- 다양한 심포지엄·엑비활성화 토론회도 개최

◆... 최근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해양배출 감축 등 현안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을 지속적인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07년 축산환경 및 자원화 지도지원사업 계획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를 위해 6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요약, 정리 게재한다. <편집자주> ...◆

◆ 친환경 축사 모델 개발 보급

농림부는 3월부터 올 한해 동안 변화된 축산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사 및 분뇨처리모델을 개발·보급하여 가축의 적정사육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별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총 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 생산자단체 축산환경 상담원 교육 실시

가축분뇨처리 전문교육을 통해 농·축협 직원을 축산농가 지도요원으로 양성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방향과 가축분뇨 이용 법률 등 관련제도에 대해 교육한다. 이를 위해 교육교재 4천만원, 교육장 및 강사료 2천4백만원, 현장견학 등에 2천6백만원 총 9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위원회 운영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 및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을 평가하고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및 관련 자재,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관한 심사 등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

최되고 필요시 실무 작업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각각 위원회 운영 1억4천만원, 점검·출장 1억4천만원, 평가결과보급 1억6천만원이다.

◆ 친환경축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동물자원과학회의 주관 아래 축산농가의 친환경적 가축사양을 위한 분뇨 자원화 처리 등 관련사항에 대한 이해 및 논의의 장이 올 9월 마련된다. 농림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향과 악취저감 방안 및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제시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교재 1천3백만원, 초청비 1억원, 기타 2천3백만원 총 1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잡았다.

◆ 액비유통센터 활성화 토론회 개최

올 5월 자연순환농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액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농지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적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통센터 대표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축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정책과 호기액비화 및 악취저감기술 설명, 가축분뇨 호기액비이용 사례 발표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5천4백만원으로 각각 책자 1천3백만원, 행사장 1천만원, 중석식 2천만원, 기타 1천1백만원이다.

◆ 해양배출 감축 홍보

연차적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 홍보가 시작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양돈협회에서 제작한 팸플릿과 포스터를 배부하고 축산관련 전문지 광고를 통해 2012년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연도별 감량계획과 대처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팸플릿 4천만원, 포스터 5천만원, 전문지 7천만원으로 총 1억6천만원이 사용된다.

◆ 자치단체 공무원 연찬회 개최

가축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 및 제도변화 등 합리적인 해결방법 도출을 위한 토론 등으로 축산환경 담당공무원의 지도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농림부는 시·도·군 축산 및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갖고 적절한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토의와 가축분뇨처리 시책 및 관련법규 등을 교육한다. 이를 위해 교재 2천만원, 행사장 4천2백만원, 연찬비 8천만원, 수당 등 3천8백만원의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양돈**